

韓國動物符作과 食文化

- 高句麗 古墳의 四神圖를 中心으로 -

김민기

북터민속박물관
(1986年 1月 20日 접수)

Animal Charm and Food-Culture of Korea

- Focused on the Sa-Shin-do (pictures of Four gods) of the old tomb of Koguryō Dynasty -

*Kim-min ki

The Curator of the Varkitō folk museum

(Received January 20, 1986)

Summary

There is the picture of four gods (四神圖) painted on the wall of old tomb of Koguryō dynasty in 4~5 century. Four gods in this picture were Symbolized by four animals, tortoise, tiger, ryong which is imaginative large Snake, and bong hwang which is also imaginative birds. Those animals were believed at that time as protecting geities against all of the human disaster and evils.

The peoples of Kojosun dynasty carried those animal charms, and painted or graved on some where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furniture, utensils, tools, wall, ceiling, etc. They ate those animals as food or medicine to treatment of all diseases and to get rid of evils and to gain well-being.

A lot of examples in historical records were cited and interrelated to above superstitions.

I. 서론

사람이 살아 가는데 있어 의·식·주 모두 중요하지만 '먹는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모든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복이나 건축문화에 비해 식문화는 유물의 소멸로 다루기가 어렵지만 이차적인 식문화의 공예품과 회화의 소재를 통해 다룰 수가 있으니 신석기 혁명이라 부르는 불의 사용과 질그릇(土器)의 발명은 식문화의 혁명과 직결되는 것이라 하겠다.

인류 최고의 벽화로 알려진 구석기 시대의 알타미라 동굴에 '들소그림'이 그려진 연유는 25,000년 전 들소를 먹이로 하던 일단의 종족이 '먹을거리'의 증식을 위해 주술적인 목적으로 그려 놓은 것이라 한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四神圖)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도는 4~5세기경의 것이므로

석기시대의 동물화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료의 보충이 가능하다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격화 되어 고구려의 오행사상으로 정리되어서 그려 졌다고 볼 때에 동물부작은 그 징검다리로 원류를 유추해 보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또 이 동물에 대한 옛 醫書의 '식이요법' 및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연결 검토해 보면 이 동물을 신격화시킨 배경도 자연히 규명되리라 믿는다.

II. 본론

종이 부적을 만들때 사용하는 붉은 丹砂는 '朱砂' '靈砂' '陰陽砂' '還丹砂'라고도 불리는 黃化 第2水銀인데 이는 온갖 재앙을 물리치는 역할 뿐만 아

나라 불노장생의 영약을 만드는 주된 약품으로 고조선(靑丘三韓)의 자부신선이 중국의 황제에게도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도 있으며 부적이거나 '먹을거리'의 하나인 약품으로서 '단사'의 효능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신도의 동물부작과 식문화와의 관계를 규명 하고자 한다.

1. 사신도의 식문화적 배경

사신도에 등장하는 동물류는 곡식이나 채소와 함께 사람의 중요한 먹을 거리가 되며 경우에 따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약으로도 쓰였다.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신도의 동물에 해당하는 잉어(용)·호랑이·닭(봉황)·거북은 절대로 제사상에 제물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음식이나 약으로는 쓰되 제사의 공물로 올렸다가는 신의 격노를 일으켜 날벼락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의 풍속은 지금도 우리 문화에 여전히 살아서 지켜지고 있다.

사신도에서의 동물신중 용과 봉황은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라 해도 우리나라 전통요리에서 龍鳳湯은 잉어와 닭을 사용 하므로 식문화적 입장에서 용은 잉어가 변해서(鯉魚化爲龍上水魚飛天龍者)¹⁾ 신격화 되고, 봉황은 닭을 신격화 시킨 것으로 상정(想定) 수호신이 되는 배경과 새 짐승 물고기가 우리 전통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鳥獸魚의 陰陽五行論 고대 신앙에서 새는 陽의 상징으로 하늘의 사신이요 대리자이며 물고기는 陰의 상징으로 바다 용왕의 아들이며 병사요 아직 동용되지 못한 인재들이다. 이 중간에서 짐승들은 산과 들녘의 지역 장수로 비유되고 있다.

| | | | |
|----|-----|--------------|---|
| 하늘 | 새 | 아리(알) - 태자 | 陽 |
| 땅 | 짐승 | 아지 - 부족장아들 | 中 |
| 바다 | 물고기 | 아이(애) - 보통백성 | 陰 |

동이족의 알신앙은 우리 민족의 국조가 하늘의 하나님이 보내준 새의 씨알이며, 서연왕(徐偃王 : 중국 周代 東夷瀛嶠族王)²⁾ 고주몽, 박혁거세의 신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조선조의 관북 흥배에 선비

(文官)는 새로 상징되고 장수(武官)는 호랑이 곰등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과 통한다. 그런데 관북의 상징에서 물고기가 없는 것은 음지에서 사는 '보통사람'이라는 뜻이며,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듯 수많은 일반 백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새가 '햇님의 대리자'로서 또는 '선비의 상징'으로 비유되는 것은 새만이 하늘을 날아 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며, 임금과 해를 동일시 하는 것이요 새가 물고기를 물어 하늘로 올라 가는 것을 악천(鵝鵝) "이라 하여 초야에 묻힌 인재를 임금에게 천거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연유도 이 탓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수직적인 것이라 한다면 수평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 낸 것이 사신도라 하겠다. 동쪽 바다에서 해가 뜨니 동은 탄생이요 파란색이며 나무(木)의 색이고 다스리는 장수는 청룡이면서 서쪽으로 해가 지니 서쪽은 죽음의 땅 고비사막이며 흰색이요 쇠(金)의 색이고 다스리는 장수는 사람 까지도 잡아먹는 백호이다. 남쪽은 집을 남향으로 두는 이유 즉 빨간 해가 있기 때문이며, 불(火)의 색이고 수작이며 북쪽은 폭동강이 있어 불의 흐름이 시작된 곳이요 비가 되는 구름은 검정색이니 검정은 물(水)이요 검은 물짐승(水神) 현무가 장수이다.

이러한 동서남북의 자연환경과 이에 따른 상징 동물들이 신앙과 복합되어 음양오행사상으로 정리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이러한 이치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사람의 몸과 나라의 조직을 일치 시키고 사람의 신분과 조직의 질서를 새 짐승 물고기에 비유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이치를 하나로(天地人 三才一理 地理與天文)³⁾ 전개 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나라의 이름을 마한, 진한, 변한이라 한것은 머리, 손, 발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요 가락국도 손가락 발가락의 '가락'을 한자로 표기한 것일테니 그 이름이 고조선의 별칭인 「청구·삼한」의 부족국가 이름에서 기원 된 것이라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馬韓왕과 그의 혈족인 진한·변한의 왕은 '새'에 비유되고 가락국의 왕은 '짐승'에 비유되니 박혁거세나 왕비는 알과 연결 「삼국유사」에 '알' 영광후 또

(1) 美術學報 1 '호랑이 민화와 오행사상의 기원' 쪽 7~8.
 (2) 天機會元 五卷十三, 쪽 二 뒷면
 (3) 後漢書八五 東夷列傳 第七五 別錄序.
 (4) 白眉故事 卷八 쪽二, 發科類.
 (5) 天機會元 五卷十一 金頤賦 發龍過峽章 第二쪽四.

는 '아리' 영왕후로 '아리'라 지칭되고 병아리의 '아리' 즉 새의 새끼와 같은 비유이며 가락국의 왕은 '아지'라 부른다고 南齊書의 東南夷傳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말 망(馬)아지, 송(牛)아지, 도(賭)아지, 강(犬)아지가 「위지」동이전·부여에 나오는 馬加, 牛加, 豬加, 狗加, 犬使, 犬使者 등의 육축판명과도 직결되며 '아지'가 고려시대로 넘어 오면 귀인의 도령으로, 조선조에는 어린 왕녀의 경칭으로 사용되다 나중에는 격하되어 쓰였지만 새와 짐승을 인간화하고 또 신격화한 문화적 배경을 보여준다. 그런데 물고기의 이름이 붙은 관직명은 마땅히 없어야 하겠지만 '아리' '아지' 등 특별 신분의 호칭에 해당되는 물고기의 인간화된 이름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널리 쓰이는 '애'요 '아이'이다. 그 증거로는 魚의 토박이 말은 '애'이기 때문이다. 고래는 음이 풀 '애'이며, 고등어는 고등 '애' (전라방언)요 잉어는 이 '애' (함경도방언)로 부르기 때문이다. 「삼국유사」에 알과 아리가 같다고 했듯이 '애'와 '아이' 또한 같은 뜻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한국인 전체 백성의 어린이를 '애' 또는 '아이'로 부르는 것은 바로 물고기의 호칭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먹을 거리와 사람과의 관계 허준(조선·선조때)의 「동의보감」에는 사람이 먹는 식품에 따라 성격이나 외모·건강·운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록하고 먹을거리인 식품의 선택이 행복을 지키는 護身의 첩경임을 강조했고 병의 일차적인 치료는 음식으로 하는데 그래도 낫지 않으면 바야흐로 약을 쓰는 것이라 하였으니, 음식의 선택조절이 몸을 지키는 수호신을 얻는 길임을 나타낸다. 이 책에 소개된 '임신부의 음식 금기법'은 다음과 같은데 같은 안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① 당나귀와 말고기를 먹으면 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나고 난산하기 쉽다. ② 개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말을 못한다. ③ 토끼고기를 먹으면 언쟁이를 낳는다. ④ 비늘없는 고기를 먹으면 난산한다. ⑤ 계를 먹으면 橫産한다. ⑥ 양의 간을 먹으면 아이의 일생에 액운이 깬다. ⑦ 닭고기와 달걀에 참쌀을 섞어 먹으면 아이에게 기생충(寸白虫)이 생긴다. ⑧ 오리고기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겨꾸로 낳고 심장이 차가와 진다. ⑨ 참새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 아이가 커서 음탕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된다. ⑩ 자라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목이 짧아진다. ⑪ 생강

쑥(薑芽)을 먹으면 아이의 손가락이 많아진다. ⑫ 울무를 먹으면 낙태하게 될 위험이 있다. ⑬ 마늘을 먹으면 태기가 소멸한다. ⑭ 메기고기를 먹으면 아이에게 감니창이 생긴다. ⑮ 산양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병치레가 많아진다. ⑯ 여러 버섯을 먹으면 아이가 경풍이 많고 요절하게 된다.

이러한 민속속의 금기 사항은 크게 보아 살생으로 인한 업장을 태아에게 물려 주지 않으려는 종교적 배려와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임신부에게 효과적인 경고를 주는 것이며, 태교의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역적인 꼬투리를 잡아 과학적인 근거 운운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요 참 의미를 속에 감추고 자연에 대한 敬畏로움을 갖도록 하는 전통문화의 한 모습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2. 호신 음식과 약의 의미

「동의보감」내경편에는 사람이 건강과 수명을 지키는데 있어 道로서 '호신'하는 것을 으뜸으로 치고 이 도의 기본을 음양오행사상에서 찾아 인간을 우주 삼라만상과의 합일된 존재로서 상호관계를 규명 그 근원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현대의학의 병폐를 미리 지적 했는데 '옛날의 신성한 醫員은 능히 사람의 마음을 다스려서 병이 나지 않게 하였는데 지금의 의원은 오직 병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니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는 것이다.'고 하였다.⁶⁾

호신부작은 마음을 치료하고 그 동요를 막는 한 방편으로 썼고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도 우리 조상들은 단순한 영양섭취의 행위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물이 상징하는 염원을 실현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까지 생각을 발전 시켰는데 설날이나 추석의 茶禮때 사용하는 茶食도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식에 찍힌 무늬는 부작에 등장하는 吉祥消災의 그림과 글자로 이를 먹으므로써 그 의미를 축복받은 것으로 보았다.

'먹었다'는 말은 우리의 俗語에서 단순히 입안에 넣어 소화 했다는 뜻만이 아니라 대상을 소유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저 여자(또는 남자)를 그가 따먹었다' 또는 '...들이 다해먹고 나는 빈 접데기만 차지 했다' 등에서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잉어나 龍字가 찍힌 다식을 먹었다면 동용문을 통과한 잉어(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된다. 하여 과거(시험)에 합격한 선비를 비유)나 용처럼

(6) 東醫寶鑑. 內景篇 一 身形 ⑮ 道로써 病을 치료한다. 쪽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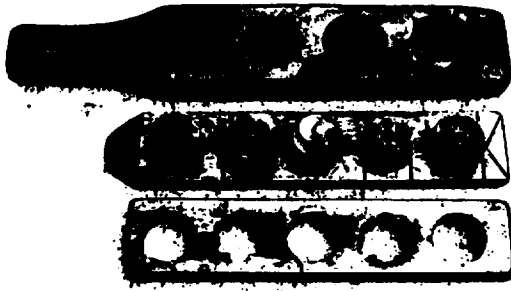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조의 다식판



그림 2. 잉어 다식판의 확대도

나라의 중요한 인재가 될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주술적인 의미와 또 그 보호를 받는다는 뜻도 갖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잉어를 살생 하므로서 생기는 業障을 피하고 그 힘을 빌리며 韓紙에 光明朱砂로 그린 부적을 태워서 그 재를 물에 타 마시며 주문이나 경문을 외는 방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니 음식과 약으로 몸을 다스리고 실물의 상징적 부분(발톱, 송곳니, 뿔, 깃털등)이나 그림, 부적등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호신부의 기능이기도 한 것이다.

3. 사신도와 동물부작

사신도는 천지 사방을 다스리는 상징적인 오행신의 그림으로 중앙에 해당되는 句陳騰蛇를 제외한 4

마리의 동물신인데 십간 십이지의 배속과 오행의 관계는 아래표와 같다.⁷⁾

| | | | | | | | | |
|------------------|----|-------|-----|-----|--------------------|---------|---------------|----|
| 오 행 소 속 | 동 | 청 | 룡 | 갑·을 | 하 늘 (天 干) | 번·토끼·용 | 땅 (地 支) | 나무 |
| | 남 | 주 | 작 | 병·정 | | 뱀·말·양 | | 불 |
| | 중앙 | 구진·동사 | 무·기 | 무·기 | | 용·개·소·양 | | 흙 |
| | 서 | 백 | 호 | 경·신 | | 원숭이·닭·개 | | 쇠 |
| | 북 | 현 | 무 | 임·계 | 돼지·쥐·소 | 물 | | |

위 사신도의 주제가 되는 동물신들의 원류를 알아 보기 위해서 그 원형으로 보이는 닭과 잉어 그리고 호랑이와 거북을 소재로 하는 부작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청룡도와 물고기 부작 龍은 비늘달린 동물중 우두머리이며 9개 동물의 특징을 고루 갖추어 ① 머리는 낙타 ② 뿔은 사슴 ③ 눈은 귀신 ④ 귀는 소 ⑤ 목은 뱀 ⑥ 배는 이무기 ⑦ 온몸의 비늘은 잉어 ⑧ 발톱은 매 ⑨ 주먹은 호랑이를 닮았다⁸⁾고 되어 있어 王者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골고루 설명한 느낌이다. 용의 발톱은 5개가 황제 4개는 왕 3개는 재상을 뜻하며, 비늘은 81개(9×9)로 陽의 극을 이루는 수이며 구름과 비를 몰아 조화를 부린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용은 잉어가 등용문을 통과해야 변신할 수 있다고 하며 민화 '어룡신선도'에서 처럼 용으로 변하는 날개달린 잉어를 타고서 물에서 하늘로 오르려는 貴人의 모습은 王侯將相으로 登龍되길 염원하는 부귀의 주술적 의도가 담겨 있는 그림이며 음이 양으로 변하는 모습이다.



그림 3. 고구려 삼포리 고분의 청룡도

(7) 淵海子平卷一、十干所屬方位十二支所屬論卷二上.

(8) 本草綱目三十三卷之四十三 鱗之一쪽三.



그림 4. 魚龍神仙圖 조선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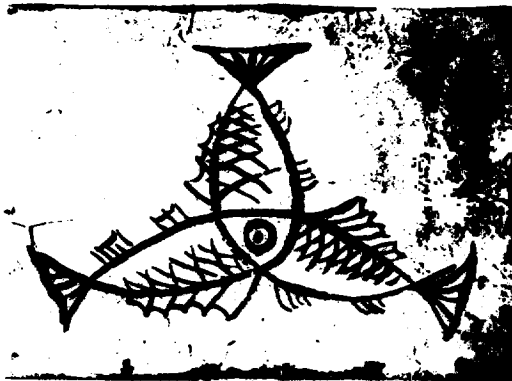


그림 5. 한눈박이 3 물고기부(一目三身魚符)

그리고 “한 눈 박이 세 물고기 부작”은 필자가 어릴 때 사용했던 기억이 뚜렷한 데 3마리를 겹치게 그려 놓고서 눈동자에 바늘을 꽂거나 땅바닥에 그려 있을 때에는 가시를 꽂고 주문을 외우는 데 ‘물고기야 물고기야 내눈의 티를 빼주면 니(네)눈의 바늘도 빼줄게’ 이렇게 거듭해서 눈을 감고 외우거나면 어느사이에 티가 눈물에 씻겨 아픔이 없어지고는 했다. (필자의 수집품에 기록된 한자의 주문은 아래와 같다.)

寄語一日三身魚 一目難難况有釘
 我須能拔爾眼釘 爾須能拔吾眼釘
 我須能拔爾眼釘 爾須能拔吾眼釘

여기서 물고기는 나의 소원을 들어준 호신부의 역할을 한 셈인데 사마천의 사기(史記·周紀·注)에는 물고기의 비늘과 장수의 갑옷을 비교 군사(魚者兵象也)의 모양으로 풀이 했고 「고사성어사전」에는 지킴의 파수병(魚者守御也)으로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잔다 하여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찰의 처마 사위에 물고기를 풍경(風磬) 끝에 달아두는 것이나 옛 쌀뒤주의 자물통을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요즈음도 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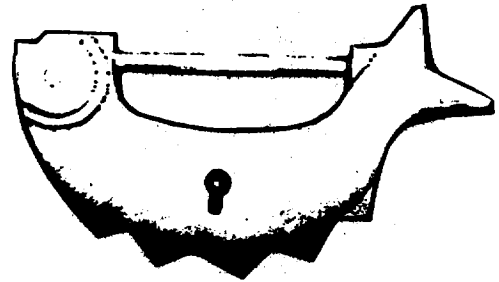


그림 6. 물고기 자물통(조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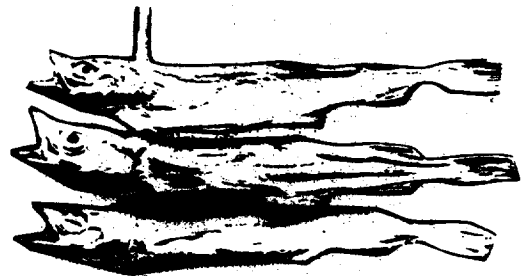


그림 7. 물고기 부작

이나 음식점 등의 개업 잔치에 가보면 출입문 위에 명태 3마리를 걸어둔 것을 더러 볼 수 있는데 이는 집이 완공되어 상량식을 올릴때에도 달아 둔다. 이 부작에서 물고기를 3마리 엮어 쓰는 것은 앞서 ‘어룡신선도’의 귀인 3사람에 해당 되는데 이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三魚者三品也 三台(相) 品字符也)⁽⁹⁾ 이 힘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어 소원성취, 재앙으로부터 보호 받기

(6) 東醫寶鑑, 內景篇一身形(9)道로써 病을 치료한다. 卷7.
 (7) 淵海子平卷一, 十干所屬方位十二支所屬論 卷二 앞.
 (8) 本草綱目三十三卷之四十三 鱈之一 卷三.
 (9) 天機會元五卷之十一, 金瓶賦 造化生成章 第一 卷.



그림 8. 고려 청동경의 비어(飛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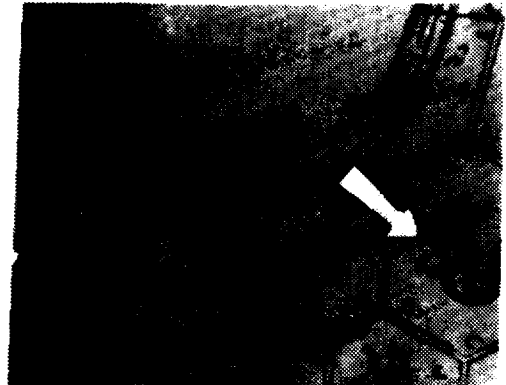


그림 9. 무녕왕릉 왕비 목침(백제) 물고기



그림 10. 산해경의 물고기잡이



그림 11. 魚龍민화(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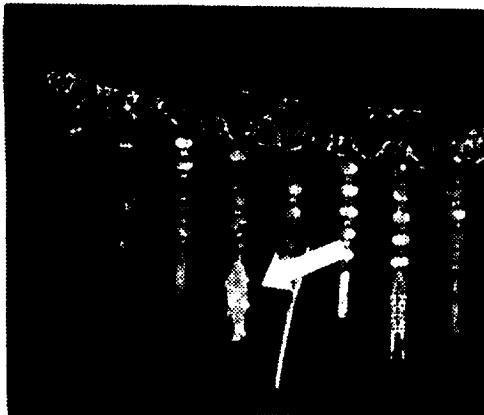


그림 12. 경주 황남대총의 金魚帶(고신라)



그림 13. 반구대 암각화의 물고기·호랑이(청동기)



그림14. 청룡·현무의 부작목판(조선조)



그림15. 백자의 청룡



그림16. 고려 청동경의 쌍룡



그림17. 상량문 초본(조선중기, 17세기)

를 기원하는 주술물임을 알겠고 여기서 물고기가 나라의 재상으로 비유되고 있으니 등용문을 통과한 용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증명된다. 최근 발굴된 경북 순흥의 고구려 고분(5세기경)에는 잉어모양의 어형기(魚形旗)를 든 역사상이 발견되었고, 고려의 청동경에는 잉어가 용이되어 구름 위로 오르는 모양이 조각되어 있다. 이 물고기 모양은 기와지붕 양끝의 빨기와(鯢瓦) 망새에도 나타나는데 인도에서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무령왕릉 왕비 목침(사진 참고)에 처음 그림으로 나타난다.

청동기시대의 암각화로 알려진 반구대에는 고래

모양의 물고기가 있고 산해경에는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그림과 설명¹⁰⁾이 보이고 삼국시대의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金魚帶 장식에도 있는데 비슷한 시대에 당나라에서는 물고기 모양의 符節을 發兵, 徵發, 州府장관교체등의 신표 혹은 귀천을 분별하고 '소명에 응할 때의 표'로서 내어 주는 부신¹¹⁾으로 썼는데 벼슬에 따라 옥, 금, 구리등으로 되어 있어 魚袋에 넣어서 몸에 지녔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고신라의 '금어대'도 재상급의 벼슬아치가 이를 사용했을 것임은 명백하고 이때의 물고기가 '부귀'의 상징이며 이를 지키는 부작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량식 때 쓰이는 부작의 주문에는 그림17에서 보는 바와

10) 山海經 海外南經, 卷之三 第五

11) 漢韓大字典, 민중서관 P. 1396

子子孫孫 福祿
 千秋流傳 富貴兼傳
 聯 崇禎紀元後 年 月 日 時立柱上梁 龍
 吾家有一客 口含萬丈水
 正是海中人 能滅火精神

같이 쓰고 있어 용이 청동경·백자·부작 등에서 부
 키키와 복록을 수호하는 역할임이 증명되며 물고기
 (등용문을 통과한)의 상징과도 일치됨을 다시 확인
 하게 된다. 상량에서 거북은 물의 신으로 글자를 거
 구로 써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주술적 의도를 강하
 게 보여 주고 있으며, 불의 재앙을 누르는 역할임
 을 알 수 있고 '부키수호·삼재·관재소멸부' (사진
 참고)에서도 좌청룡 우백호가 중앙의 官災消滅符
 좌우에 있어 부키 복록의 수호신임을 명백히 밝히
 고 있다.



그림18. 부키수호 삼재관재 소멸부

또한 속담에도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사전에서는 '영물인 용이 더럽고 자그마한 내에서
 났다는 뜻으로 미천한 집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
 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개천에서 '미꾸라지가 용이 됐다'는 이야기와도 통
 하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비유 될 수 있을까
 를 살펴보면 「동의보감 내경편」에 '인체는 하나의
 국가'라 하였으니 잉어가 음식과 약으로서 사람몸
 에 어떻게 기여 하는가를 살펴 보면 자연 해답을 얻
 게 되리라 생각 된다

「본초강목」에는 잉어를 모든 물고기의 우두머리
 라 하고 능히 신으로 둔갑 하는데 비늘은 36개여서
 음의 성수를 이루고 있다(鯉魚 魚主 能神變 三十六鱗亦
 是成數)고 설명했다.¹² 역(易)에서 음이 극하면(6
 × 6 = 36) 양으로 변한다 하였으니 이를 먹으면 풍
 기나 열이 있는 사람은 화를 입으나 소변을 잘 나오
 게 하고 중기가 없어지며 황달·각기병·천식등에
 회를 해서 먹으면 좋고, 수종·임신감한·태기가불
 안할 때, 산모가 젖이 잘 안나올 때·각종 종기에는
 그 살을 쓰고, '쓸개'는 눈에 열이나 충혈 되었을
 때 또 췌병등 여러가지 치료 효과가 있고, '기류'
 은 어린애 경기(驚忤諸痢)등에 좋고 '골'은 간질이
 나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이 미음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 그밖에 피·창사·눈알·이빨·뼈·검질·비
 늘등 모두 각종 치료제로 쓰인다. 잉어외에 붕어,
 조기등도 치료제로 쓰이는데 음식과 약을 모두 겸
 하고 있어 물고기가 몸에 들어가 병귀를 쫓는 역한
 을 신격화 한다면 나라를 구하는 인재요 수호신으
 로 미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작도와 닭 부작 朱雀은 본초경에 남방의 붉은
 새를 봉(鳳南方朱鳥也)¹³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우선
 봉황(鳳-8 凰-9)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 새는 전
 체적으로 닭과 비슷하나 닭의 머리, 뱀의 목, 제비
 의 턱, 거북의 등, 물고기의 꼬리, 모양을 하고 키
 는 6척이며, 몸과 날개는 5색의 빛이 찬란하고
 5음(궁·상·각·치·우)의 소리를 내며, 오동나무가 아
 니면 깃들이지 아니하고 대나무 열매를 먹으며 성
 천자가 나타나면 이 새가 보이는데 못 짐승들이 모
 두 따라 다닌다고 한다. 이 봉황은 붉은 빛이 많은
 것을 봉, 푸른빛이 많은 것을 난(鸞)새, 노란것을
 원(鵷)새 보라빛을 악작(鸞鷟) 흰빛을 숙상(肅霜鷟)
 이라 부른다. 조선의 민화나 왕실, 사찰산영에 사
 용된 이들 봉황은 실은 닭을 미화한데 지나지 않고
 고구려 고분의 "주작도"도 크게 다름바 없다. 그것
 은 「본초경」에 그려진 꼬리긴닭(長尾鷄)과 매우 흡
 사하니 한방약에서 닭이 봉황의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겠다. 「산해경」과 「만보전
 서」에는 태양신이 본래 닭으로 그려 있으며 한자의
 계(鷄)는 해(奚)와 통하는 음으로 鷄자를 파자하면
 鷄=해(奚)+새(鳥)의 뜻으로 해가 뜨는 것을 나타
 주는 새라는 말이며 한자의 '계'는 '해'에서 변음
 되고 우리말 해(太陽)가 본 뜻임을 알 수 있다. 「본

12 東醫寶鑑, 海液篇 魚部 卷374

13 本草綱目卷四十九 禽之四, 山禽類, 卷十六~十七



그림19. 민화봉황도

초경」에는 닭의 약효가 조선닭이 제일(入藥取朝鮮者良爾)이라 했고 능히 사악한 음귀를 쫓는 신령스런 새(鷄能辟邪則靈禽也)라 하였으며 약으로 쓰면 허약자를 돕고(補益虛弱)·노인중풍·먹은것을 쉽게 토할 때·각기병·열두통·심한 기침·풍팔이 허할 때·산(疝)증으로 도려내고 찌르는듯 아픈병·타박상·죽은애가 나오지 않을 때·극도로 피로하고 허약할 때·양기들 논는데·어린애 기절 등등 여러 병에 고기·뼈·닭벼슬·달걀등이 쓰이고, 흰닭은 단독제거와 난산치로, 붉은닭은 사기를 물리치고 풍통을 제거하며, 검은닭은 산모가 젖이 나지 않을 때, 고기를 먹고 이 검은 수닭·밀떡구니(동철의 糞皮)는 남자의 유정(遺精) 치료에 쓴다. 누런닭은 양기를 돋고, 삼닭을 먹으면 용맹스러워지며, 닭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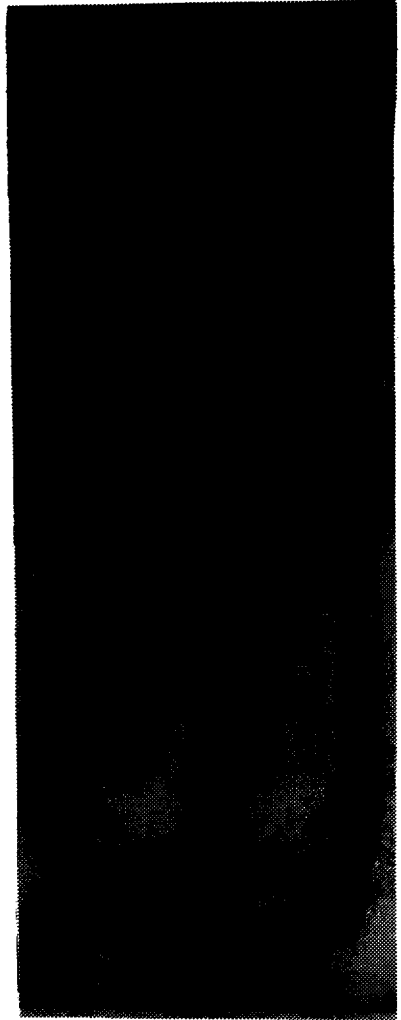


그림20. 주조(朱鳥)봉황이 그려진 마사형통부작

리를 설날 아침에 동쪽 출입문 위에 걸어 두면 일년 내 악귀가 집안에 들어 오지 못하는데, 이 부작으로 쓰는 수닭은 흰색이나 붉은닭이 좋고 동문쪽에서 자란 것을 쓴다.¹⁴⁾ 또 잉태한 부인이 사내아이를 낳게 하려면 수닭 콩지 3개를 뽑아 몰래 자리 속에 넣어 두면 된다고 「동의보감」에 소개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총애를 독점하기 위한 주술로 이 부자리 밑에 닭그림 부작을 넣어 말쟁(函鷄呪咀)을 이르킨 주부(注簿)와 내시가 참형을 당한 기록¹⁵⁾이 있는데 이는 닭의 힘을 빌려 음기를 제어하는 비방이다. 또 고려 정종(靖宗) 때는 세시풍속으로 나라

14) 東醫寶鑑, 방약편, 禽部 卷347

15) 高麗史 毅宗二(世家卷十八)十五年 辛巳九月 卷276



그림21. 닭 부작

의 역귀(전염병)를 쫓기 위해서 닭을 기둥에 결박하고 창으로 찌르거나 찢어 죽이는 책계법(蹙鷄法)이 시행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왕이 참혹한 원시 풍속에 마음 아파 사천대에 명령 다른 방법을 연구토록 지시 이에 따라 흙으로 소를 만들고(土牛符), 서상지(瑞祥志)에 따라 책계법을 대신 하였는데 이는 추위를 쫓는 秘方이라 한다.¹⁶⁾ 닭에다 형벌을

가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닭들에게 일벌 백계의 경고를 주어 그 소임을 다하라는 엄중한 명령인 셈인데 닭이 사악한 귀신을 쫓고 새벽을 알리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은 이로서 명백하고, 태양의 새 '주작'의 역할도 훌륭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호도와 호랑이 부작 호랑이는 한반도와 만주 중국 동부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산중에서 마주친 가장 흉폭한 맹수로 18세기에 쓰여진 「오주연문장전산고」에는 우리나라에 호환이 많아 어두어지면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鑛山에서 도당제를 올리는데 이는 시골 사람들이 그곳의 수호신에게 올리는 제사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내어 울부짖고 그 벌로 마을에 내려와 사람이 아니면 가축이라도 물어 갔다고 한다.

살아 있는 호랑이가 사람으로 부터 신으로 받들어지고 제사까지 받아 먹는 풍속은 「후한서·동이전」의 기록(滅貊謂虎以爲神)으로 보아도 먼 옛날 부터 전해진 것이며, 우리 민족을 예맥족이라 호칭하는 맥(貊)자는 맥(貊=纘) 호랑이를 지칭하는 토렘 풍속에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므로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가장 '무서운 맹수'와 '수호신'이라는 토렘적 이중성을 갖게 된다. 「호랑이 부작」은 삼재(三災)를 쫓고 자손창성을 도우며 업장을 소멸케 하고 벼슬길을 재촉하며 승진을 돕고 무덤앞의 들호랑이는 죽은자의 간을 망량(罔兩) 귀신으로



그림22. 고구려 강서중묘 서벽 백호도

16) 高麗史 志卷十八, 禮六凶禮, 季冬大饗儀 帙369-370



그림23. 청동기 시대의 허리띠 호랑이장식



그림24. 호랑이 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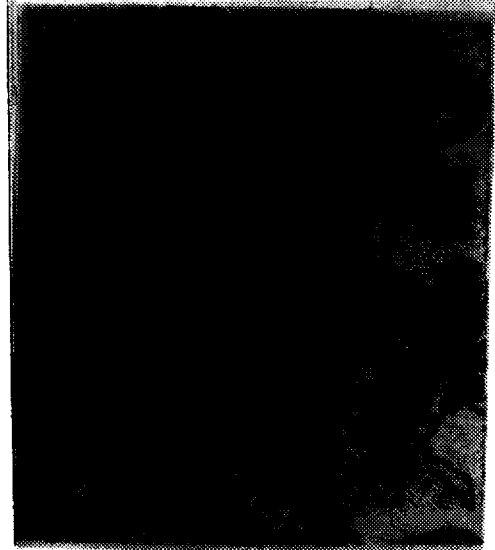


그림25. 백호 천무부

부터 지켜주며 세시풍속의 민화에서는 집안에 악귀가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임신부에게는 석색한 사내아이를 원하는 태교의 방편으로도 사용되었다. 「본초경」에는 호랑이가 치료제로 쓰이는 이치와 부작이나 민화의 쓰임이 서로 직결됨을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호랑이뼈는 사악한 기운과 병귀를 죽이며 악창을 치료 하는데 쓰고, 그 머리뼈는 더욱 좋다. 朱砂로 그린 '호랑이부작'을 지나면 병귀가 달아나 치료되고 그 해골을 배개로 사용하면 악몽을 물리칠 수 있으며 출입문 위에 걸어두면 귀신을 쫓고 뼈는 경풍·학질·악성중기등 병을 풀리 치는데, 頭風에는 머리뼈가 좋고, 허리와 다리가 아픈 풍병도 역시 범의 다리 허리뼈를 치료제로 쓰는 것이 좋다. 호랑이 뼈를 풍병 치료제로 쓰는 것은 風이 호랑이에 순종하기 때문인데 오행상극으로 보면, 바람 '풍'은 木이고 호랑이 백호는 서쪽 金이어서 나무는 쇠에 찍혀 꺾이므로 호랑이가 그 기운을 세계 품으면 '풍' 기운은 몸에서 빠져 달아나고 병은 치료가 된다. 호랑이 고기는 기력을 더하고 심장을 돕고 구토와 학질을 다스리고 36종의 정매(精髓)를 다스리며 이 고기를 먹고 산에 가면 호랑이와 산짐승이 모두 두려워 한다. 그외 호랑이의 코, 이빨, 발톱, 털가죽, 쓸개, 오줌, 해골, 눈알, 수염등이 모두 치료제로 쓰이는데 진정제, 미친병 치료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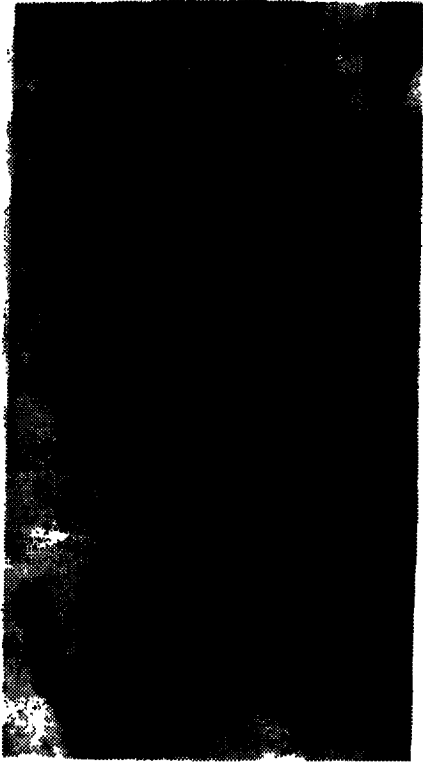


그림26. 호랑이 민화

풍치로·음창·종기·부스럼·충치·광견병·염병·금속을 삼켰을 때 등등 어느 부분도 버릴것이 없이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도 ‘호랑이 기름’이 만병통치약 처럼 쓰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선왕조 세종실록에는 가름이 몇해물 계속되자 호랑이 목을 잘라 한강에 던졌다는 기록이 있고, 또 ‘소동파’의 시에는 호랑이 양쪽 가슴에 있는 을(乙)자 모양의 뼈를 威骨이라 하는데 이를 지니면 벼슬아치는 위엄을 얻고 서민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현무도와 거북이 부작 고분 벽화의 현무도는 거북과 뱀이 뒤엉켜 있고 거북의 머리카락 꼬리는 뱀과 비슷하며 천성이 암컷이니 짝을 채우기 위해 뱀을 수컷으로 빌린 것이라(甲虫之長 外骨内肉 天性無雄 以蛇爲雄 出典:爾雅) 한다. 「설문해자」에는 뱀 사(蛇)자로 옛날에는 귀(龜)자를 썼다(龜古蛇字也)는 기록도 있다.

거북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의 상징이기도 한데 사마천의 「사기」봉선서에는 발해중에 있는 삼신산이 큰 거북의 등(大龜背負三神山)에 업혀 있는 모양으로 설명하고, 진시황이 봉래산(금강산의 별칭)

신선에게 불사약을 구하러 사신을 보냈으나 德이 부족하다 꾸짖고 주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도 거북은 부작에서 수명장수와 오복 및 불의 재앙을 쫓는 물의 신으로 쓰이고 있다.

「포박자」(抱朴子)에는 거북이 천년을 사는데 천년 목은 거북은 5색을 띠고 껍질이 옥돌 같으며 커졌다 작아 졌다 변화 막측이고 숨을 쉴때에는 검은 연기를 내뿜는다 했다. 수명이 사람의 몇십배 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잘 알아 거북으로 점을 치는데 등과 배에 임금 王자가 있는 것이 제일이고 이는 나라의 앞일을 예시해 주며 이런 신귀(神龜)나 보귀(寶龜)는 아주 구하기 어렵고 약효는 으뜸이라 한다. 이 거북은 사람의 심장·콩팥·피를 돕고(補), 음혈이 허약한자를 치료하며 난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살려낼 때와 오래된 학질·산후 하혈, 종기가 처음 생길때·부인의 젖독·어린애 두창 등에 껍질을 쓰고 살은 오래된 해수 기침과 하혈로 허약해진자·각혈·식은땀이 날때·근육과 뼈마디가 심히 아플때·치료제로 쓰인다. 거북의 피는 탈항, 타박상등에 쓸개는 눈병 월경불순에 그리고 오줌도 귀한 약으로 쓰인다. 거북 종류중 독모(瑤瑁)는 대



그림27. 江西大墓 北壁 玄武圖

(17) 本草綱目 三十八卷之五十一 獸部下 虎·豹·獾

모(玳瑁)라고도 하는데 녹약을 먹고 숙어 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해독제로 쓰여진다. 독이 든 음식 옆에서는 이 거북이 매우 요동을 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 하며 아주 귀해서 이 독도 짝질로 만든 깔자리를 '대모연'이라 부르고 임금의 자리라 별칭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나고 높은 벼슬아치의 갯끈·보석함·서류함등에 치장으로 쓰고 위급 할때는 이를 떼어내 해독제로 썼다. 한다. '거북이 부작'이 재앙을 쫓고 수명을 늘이며 복을 부르는데 쓰이는 것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연스런 일이라 하겠다.

오행 상관표

| 오행 | 목 | 화 | 토 | 금 | 수 |
|----|------|------|------|------|------|
| 별 | 목성 | 화성 | 토성 | 금성 | 수성 |
| 짐승 | 청룡 | 주작 | 구진 | 백호 | 현무 |
| 맛 | 신맛 | 쓴맛 | 단맛 | 매운맛 | 짠맛 |
| 오장 | 간 | 심 | 장 | 폐 | 콩팥 |
| 때 | 봄 | 여름 | . | 가을 | 겨울 |
| 색 | 동 | 남 | 중 | 서 | 북 |
| 색 | 파랑 | 빨강 | 노랑 | 흰색 | 검정 |
| 소리 | 각 | 치 | 궁 | 상 | 우 |
| 오정 | 희(喜) | 락(樂) | 육(慾) | 노(怒) | 애(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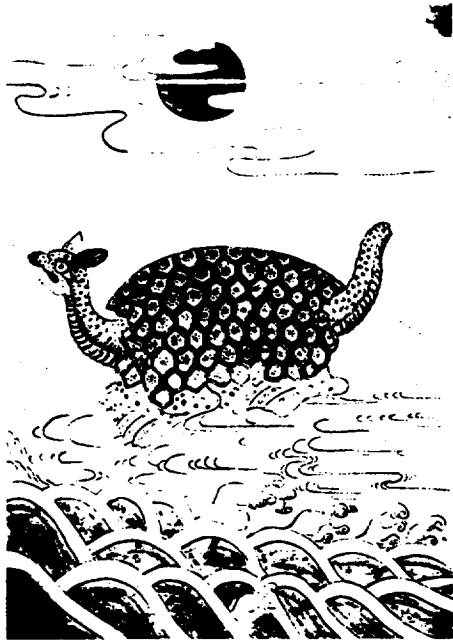


그림28. 민화 십장생중 거북도

III. 結 論

이상에서 '사신도'의 동물신이 수호신이 되고 부작의 주제로 등장되는 연유를 식문화의 배경을 통해 함께 살폈는데 이를 오행사상과 연결 시키면 다음 표와 같고 그 이치는 우주삼라만상의 제반사에 모두 통용된다는 「태화경」의 三才一理也로 선인들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지키는 호신을 하려면 병이 나서야 비로

소 음식과 약으로 치료하려 할게 아니라 평소에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섭생의 방편에서 부작과 식문화의 만남이 먼 옛날 부터 있어 왔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마음의 치료와 관리에 공헌했던 부작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 오늘에 알맞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음식에 혼을 부여했던 조상들의 지혜로움도 배워야 되리라 믿는다.

- 참고도서 -

- ① 山海經：晉記室參軍郭璞傳 吳志伊註(木板)
- ② 高麗史：國故叢刊第一延大東方學研究所. 4288.
- ③ 高麗以前風俗關係資料撮要 朝鮮總督府中樞院 昭和14年
- ④ 李朝實錄風俗關係資料撮要 昭和16年
- ⑤ 白眉古事：朝鮮木板本 許以忠集
- ⑥ 本草綱目：明 李時珍木板本.
- ⑦ 東醫寶鑑：許浚著, 金義乾譯1985, 大城出版社.
- ⑧ 五洲衍文長箋散稿, 古典刊行會, 東國文化社. 4292.
- ⑨ 天機會元：重刊本, 上海 校經山房印行.
- ⑩ 人子須知：重刊本, 朝鮮木板本.
- ⑪ 周易：南晚星譯解, 玄岩社刊.
- ⑫ 萬寶全書：上海棋盤街中啓新書局.
- ⑬ 詩學圓機十三冊尚藏板 年代未祥.
- ⑭ 史記, 萬曆五年 徐中行撰 木板本.
- ⑮ 淮南子, 萬曆辛卯年 明 張象賢訂本.
- ⑯ 韓國民画 中央日報 季刊美術1978.
- ⑰ 韓國美術全集 同和出版社 1974.
- ⑱ 美術學報I 크리스찬신문출판부. 1985. 12.
- ⑲ 後漢書八五, 朝鮮重刊本 木板.
- ⑳ 淵海子平 徐東齋編 掃葉山房藏板(崇禎七年).
- ㉑ 漢韓大字典 民衆書館1976.
- ㉒ 大漢韓辭典 省音社 張三植 1971.
- ㉓ 大漢和辭典 諸橋敏次著, 大修館書店昭和43.
- ㉔ 玉篆訣筆寫本 年代未祥.